

※ 명(1368 ~ 1644)

- 성립 : 원 말기 백련교도의 난 →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대도 점령, 난징 도읍, 명 건국 → 육유 제정, 승상제 폐지, 이갑제 정비, 해금령(1371~) 실시
- 발전 : 영락제(⑤, 재위 1402 ~ 1424) 때 베이징으로 천도(1421), 몽골 공격, 베트남의 수도(탕통) 점령(1407), 정화의 항해 추진(1405 ~ 1433)
- 쇠퇴 : 몽골의 침략[토목보의 변(⑥ 정통제, 오이라트부, 1449), 경술지변(타타르부 알탄 칸의 침략, 1550)], 왜구의 약탈 등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국력 소모(북로남왜의 화) : 해금 정책 동요(1567) → 무역의 제한적 허용 등으로 해결 노력

※ 조선(1392 ~ 1910)

- 건국 : 고려 말 공민왕의 반원 개혁 추진 → 명과의 외교 분쟁, 고려의 요동 정벌 추진 →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1388) →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함께 조선 건국(1392)
- 사대교린의 외교 : 명과 책봉·조공 관계(1401~), 무역소를 설치하여 여진과 교역, 일본에 강경책과 회유책 실시[쓰시마 정벌(1419), 3포 개항(1426), 계해약조(1443)] : 16세기 일본과의 교역 통제 강화(임신약조·정미약조) → 삼포왜란(1510), 을묘왜변(1555) 등 발생

※ 일본 무로마치 막부(1336 ~ 1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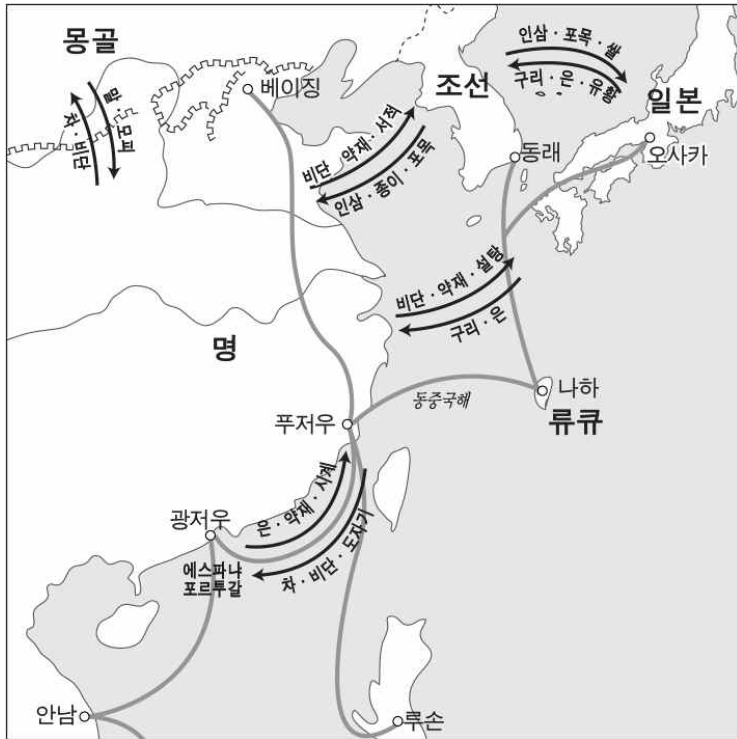
-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남·북조 분열 통일(1392) → 명(明)과 국교 수립(아시카가 요시미쓰, 일본 국왕 책봉, 1401) → 명과 감합 무역 전개(1404 ~ 1523)
- 오닌의 난(1467 ~ 1477)
 - ↳ 센고쿠 시대(1467 ~ 1573) → 나가시노 전투(오다 노부나가 + 도쿠가와 이에야스 對 다케다 가쓰요리, 1575)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1590)

※ 류큐(1429 ~ 1879)

- 오키나와 열도에 14세기 세 왕조(중산·북산·남산) 출현 → 중부의 중산 왕조가 삼국 통일 → 류큐 왕국 수립(1429)
- 일본 시마즈씨[島津氏]의 침입(1609) → 메이지 정부의 정복(1879), 오키나와 현

※ 베트남

- 대월(전 왕조)의 쇠퇴·멸망(1400) → 호 왕조 수립(1400) → 명(明)의 침략과 호 왕조 멸망(1407) → 레 러이의 항쟁과 대월(레 왕조)의 독립(1428), 탕롱(하노이) 수도 → 명(明)으로부터 책봉



명(明)은 조공 횡수를 국가마다 지정하였는데, 베트남은 3년에 한 번, 일본은 10년에 한 번 정도를 지정해 주었다. 이에 비해 류큐는 1년에 한 번으로 우대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류큐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더 쉽게 더 많이 중국 상품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명의 해금 정책으로 명 상인이 해외로 진출하기 어려워진 점도 류큐 상인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류큐는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에 걸쳐 명과의 조공 무역을 중심으로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잇는 중계 무역을 왕성하게 전개하였다.** 왼쪽 지도에 나온 류큐 왕국의 교역로는 류큐가 명의 상품을 일본, 조선, 동남아시아 등지에 팔고, 각국의 특산품을 배에 싣고 돌아왔음을 보여준다. 해외에서 조달한 물품에 자국의 생산품을 더하여 명으로 수출하고, 다시 배에 중국 상품을 가득 채워 귀환하는 전형적인 중계 무역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류큐의 중계 무역은 1567년 명의 해금 정책 완화와 유럽 상인의 진출로 점차 쇠퇴했지만, 그 위상은 여전하였다.**

임진 전쟁이 끝난 뒤인 **1609년 일본의 사쓰마 번이 류큐를 정복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정복된 이후에도 류큐는 명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지속(양속 관계)하였다. 일본이 류큐를 통한 명과의 교섭이나 무역이 갖는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이중적인 관계를 허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관계는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1879년 일본 메이지 정부가 류큐를 하나의 현으로 만들고 이어 오키나와로 개명하면서 끝났다.** 태평양 전쟁(1941 ~ 1945) 때 미군에 의해 점령되어 미군 기지가 건설되었고, 지금도 일본 최대 미군 기지가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몽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부족이 무역을 요구하며 수시로 침략 : <u>토목보의 변(오이라트 부, 1449)</u>, <u>경술지변((타타르 부 알탄 칸의 베이징 포위, 1550)</u> 등 몽골의 강력한 위협에 직면 : 몽골과 강화를 맺어 군사비 절감 • 닝보의 난(1523)으로 감합 무역 중단, : <u>왜구가 출몰</u>하여 동남 해안에서 잇따른 약탈 자행 : 척계광(1528 ~ 1588)의 화약으로 왜구 섬멸(1566) • 포르투갈의 마카오 거주권 획득(1557) • 신종 만력제(㉓, 재위 1572 ~ 1620) 때 <u>장거정(1525 ~ 1582)의 개혁 정책</u> 추진 : 관료들의 업적을 엄격하게 평가, 토지 조사(토지 장량), 일조편법의 전국적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상당한 호전 • 장거정 사후 관료와 신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환관 세력의 전횡으로 정치적 혼란 심화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구와 사림의 대립(사화) → <u>사림의 집권</u> → 붕당의 성립 및 붕당 간의 대립 격화 • 대지주의 토지 겸병 등으로 농민이 몰락하면서 군에 복무할 인원과 전세 수입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에게 부과하던 군역 대신 군포 징수, 군적에 등록된 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으나, 실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이 크게 감소 • <u>사대교린의 외교 정책</u> : 명 →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 조공 : 일본 → 3포(부산포·내이포·염포) 중심 교역, 3포의 왜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교역이 원만하지 않자 난을 주도(삼포 왜란, 1510)
<p style="text-align: center;">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오닌의 난(1467 ~ 1477)</u> : 다이묘의 패권 쟁탈전 전개, 100여 년에 걸친 센고쿠(전국) 시대의 혼란 지속 • 포르투갈 상인의 <u>조총 전래(1543)</u> : 다이묘들의 패권 다툼에 이용되면서 센고쿠 시대의 세력 판도 변화 • <u>도요토미 히데요시</u>의 전국 시대 통일(1590) : 전국적인 <u>토지 조사(검지)</u>, 석고제(石高制, = 코쿠다카) 실시, 도량형 통일, <u>무기 몰수령(도수령)</u> 시행 : 무사·상공업자·농민의 신분 이동 금지, <u>병농 분리 확립</u> → 무사·상공업자의 거주지(조카마치)와 농민의 거주지(농촌) 구분 : 정명향도(征明嚮導) 요구에 대한 조선의 거부 → 조선 침략

Check!

‘북로남왜의 화’와 무기 몰수령

- 가정 29년에 타타르의 **알탄**이 군대를 백묘(白廟)로 이동시켜 고북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합주아가 거짓으로 적이 이미 물러갔다고 말하여 변경의 방비를 느슨하게 하니, 알탄은 마침내 합자동·조유구를 경유하여 들어와 곧바로 베이징 지역을 침범하였다.
- 가정 32년 3월에 왕직이 여러 왜구들을 결집하여 대거 노략질하였는데, 수백 척의 전함이 연이어 바다를 뒤덮었다. 절동, 절서, 강남, 강북 연해의 수천 리에서 동시에 왜구가 출몰했다는 긴급 상황이 보고되었다. 왜구는 창국위를 격파하였다.

백성들이 도(刀), 단도, 활, 창, 철폭, 기타 무기·무구류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무구류를 백성들이 가지고 있으면 연공 등의 납입을 꺼리거나, 혹은 봉기를 일으켜 다이묘에게 토지를 받은 자에게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 거두어들인 무기들은 대불을 건립하는 데 못, 꺾쇠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개념 Check

- ①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1543년 수용된 ()은 센고쿠 시대의 세력 판도에 변화를 가져왔고, 1549년에는 ()가 전래되었다.
- ② 오이라트부에 의해 발생한 1449년의 () 이후 명은 만리장성을 개축하였다.
- ③ 장거정(1525 ~ 1582)은 수취 제도를 개혁하여 ()을 확대 시행하였다.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 ~ 1598)의 팽창 정책 : 무역의 확대와 과도한 군사력의 배출, 영토 확장 등을 위해 적극적인 대외 진출 모색 : 명 침략에 협조할 것을 조선에 요구(征明嚮導) → 조선의 거절 : 16만여 명의 병력으로 조선 침략(1592. 4月)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초기 : 일본군의 우세 → 오랜 내전을 통해 얻은 풍부한 전투 경험과 조총(鳥銃)의 위력을 바탕으로 연이어 승리(부산진, 탄금대 전투) • 선조(㉒, 재위 1567 ~ 1608)의 평양 피란(4. 29) → 의주 피란(6. 11) → 명에 원군 요청 • 각지에서 의병 봉기,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한산도 대첩, 7. 8) → 전쟁의 양상 변화 • 베이징의 울타리인 요동이 위협받을 것을 염려한 명의 참전(12月) → 동아시아 삼국의 국제전으로 확대 • 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탈환(1593. 1月) • 명군의 벽제관 전투 패배(1593. 1月) → 한성(한양) 탈환에 실패 → 전쟁의 교착 상태 •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 협상 시작(1593. 5月) → 일본의 과도한 요구로 협상 결렬 • 일본군의 재침(정유 전쟁, 1597. 1月) → 명량 대첩(1597. 9月) • 도요토미 히데요시 병사(1598. 8月) → 전쟁 종료 	
결과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 쇠퇴 → 후금(1616)의 성장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 황폐화, 명에 대한 사대[재조지은(再造之恩)] 강화 • 광해군(㉓, 재위 1608 ~ 1623)의 전란 수습 정책 : 토지 대장과 호적 재정비, 불에 탄 궁궐과 성곽 수리, 『동의보감』 간행(1613) • 항왜인(降倭人, 귀순 왜장 사야가), 항왜촌(降倭村)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쿠가와 이에야스(1542 ~ 1616) : 세키가하라 전투(1600) → 에도 막부 수립(1603) • 문화 발전 : 성리학의 이해 심화(강항), 도자기 발달(이삼평, 아리타 현 자기) • 조선과 국교·교역 재개 : 포로 송환 협의(1604), 회담겸쇄환사 파견(1607·1617·1624), 조선통신사 재개(1607 ~ 1811), 기유약조(1609)

▶정묘 전쟁(1627)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해군(㉔, 재위 1608 ~ 1623)의 중립 외교 : 명 ~ 후금, 사르후 전투(1619), 강홍립(1560 ~ 1627)의 투항 • 인조반정(1623) : 광해군의 집권과 대내외 정책에 반감을 품은 서인 일파의 정변 → 광해군 폐위, 인조(㉕, 1623 ~ 1649) 즉위 •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親明排金) 정책 : 가도 사건[가도도독부 도독 모문룡(1576 ~ 1629)에 대한 지원 강화, 1623] • 이괄의 난(1624)과 잔여 세력의 후금 투항 • 후금의 선양 천도(1625) • 영원성 전투(1626) → 누르하치(1559 ~)의 사망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금 흥타이지의 침략 → 황해도 평산(平山)까지 침입, 인조의 강화도 피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묘약조(1627) : 형제 관계 체결, 조공 지급, 개시무역(開市貿易) 실시

▶병자 전쟁(1636)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금의 칭제건원, 국호 청(淸), 조선에 군신관계 요구 : 주화론(主和論)과 척화주전론(斥和主戰論)의 대립 → 척화론의 우세 → 태종의 침략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만에 한성을 함락 → 인조의 남한산성 피신 → 왕비와 왕족이 피란해 있던 강화도 함락 → 각지에서 올라오던 구원군의 패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 청, 군신관계 수립(1637) : 삼전도의 굴욕(삼궐구고두)과 청태종공덕비 건립(1639), 연행사(燕行使) 파견 •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척화론자 압송 → 심양관(1637 ~ 1644) : 환향녀(속환녀), 반청 의식 고조 • 이자성의 반란군의 베이징 점령 → 명의 멸망(1644)

① 일본이 요구한 주요 강화 조건

- 명 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과 결혼시킬 것
- 명과 일본 양국의 전권대신이 통교를 서약하는 문서를 교환할 것
- 조선의 남부 4도(경상, 전라, 충청, 경기)를 일본에 할양할 것
- 일본과 명의 무역을 재개하여 관선과 상선을 왕래하도록 할 것
- 조선 왕자 한 명을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
- 일본은 포로가 된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을 송환할 것
- 조선의 중신이 일본에 영원한 항복을 서약할 것

- 『선조실록』 1596. 4. 10

② 최명길(1586 ~ 1647)의 주화론

주화(主和), 이 두 글자가 신의 일평생에 허물이 될 줄 잘 압니다. …… 자신의 힘을 생각지 않고 경망하게 큰소리를 치다가 오랑캐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묘와 사직이 끊어지게 한다면 그 허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국력은 고갈되었고 오랑캐는 병력이 강성합니다. 정묘년 때의 맹약을 지켜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춰야 합니다. 그 사이 어진 정치를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고 군량을 저축해야 합니다.

- 『지천집』

③ 윤집(1606 ~ 1637)의 척화론

천조(명)는 우리나라에 부모의 나라이고…… (후금과) 형제의 의를 맺음으로써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임진년의 일은 작은 것조차도 황제의 힘이니, 우리나라가 살아 숨쉬는 한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오랑캐의 세력이 크게 확장하여 명의 수도를 핍박하고 황릉을 더럽혔는데…… 병력이 미약하여 정벌에 나가지 못하였지만, 차마 이런 시기에 어찌 다시 화의를 제창할 수 있겠습니까.

- 『인조실록』 1636. 1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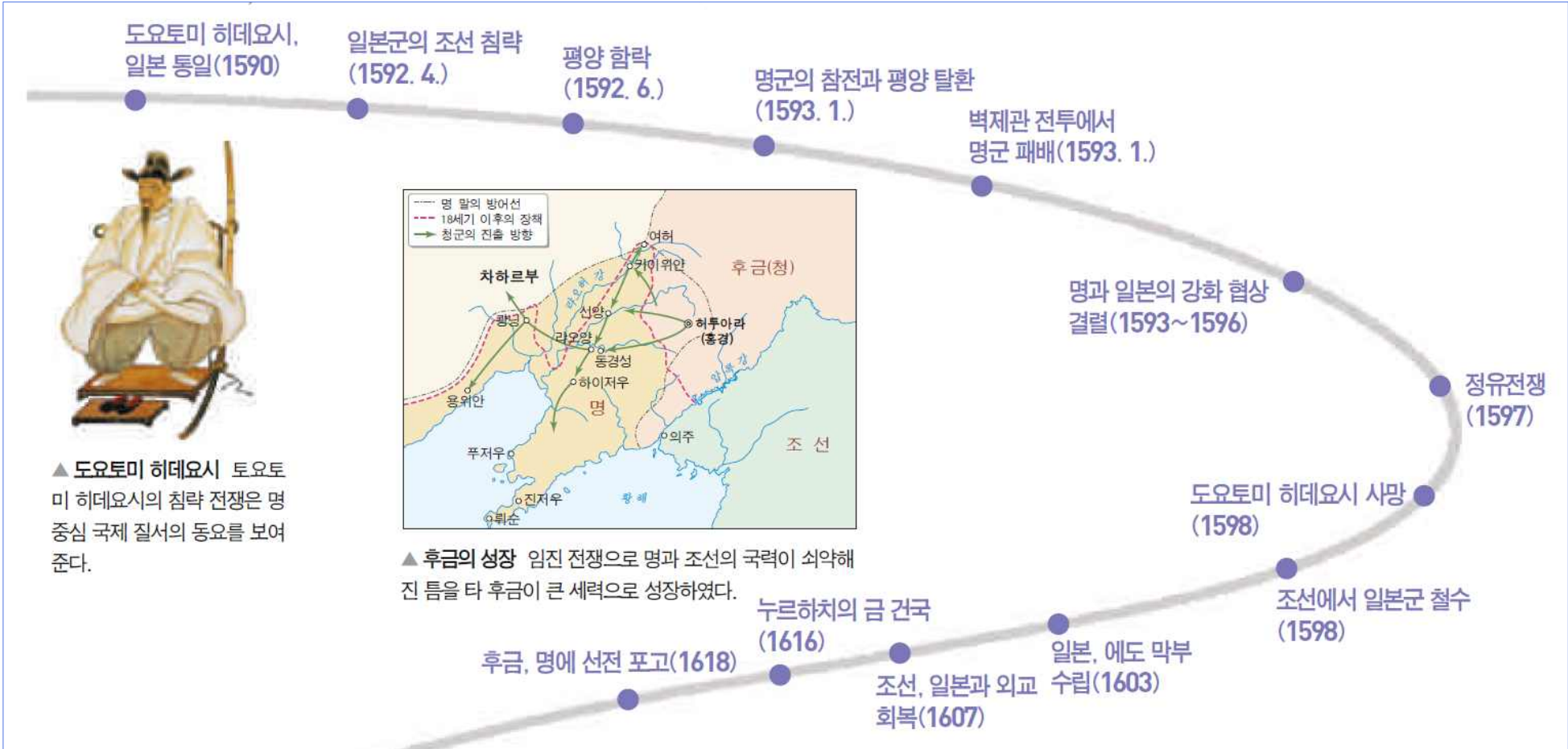
④ 일본 교과서의 임진·정유 전쟁에 대한 기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 조공하고, 명을 침공할 때 앞장서라고 조선에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1592년(분로쿠 원년) 조선에 16만 여의 대군을 보내 침략 전쟁을 시작하였다(분로쿠의 역). …… 명으로부터 원군이 도착하고, 각지에서 조선 민중이 의병을 일으켰다. …… 히데요시는 명과의 강화 교섭을 위해 휴전했지만, 교섭은 결렬되었다. 1597년(계이초 2), 히데요시는 다시 조선과 전쟁을 시작하였다(계이초의 역).

- 『신선 일본사 B』

Check!

동아시아의 전쟁과 정세의 변화



조선은 동쪽 변방에 끼여 있어서 우리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깝습니다. 평양은 서쪽으로 압록강과 인접하고, 진주는 직접 등주와 내주를 맞대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조선을 빼앗아 차지하여 라오둥을 옛본다면 1년도 안 되어 베이징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을 지켜야만 라오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해방찬요』

Check!

동아시아의 전쟁과 정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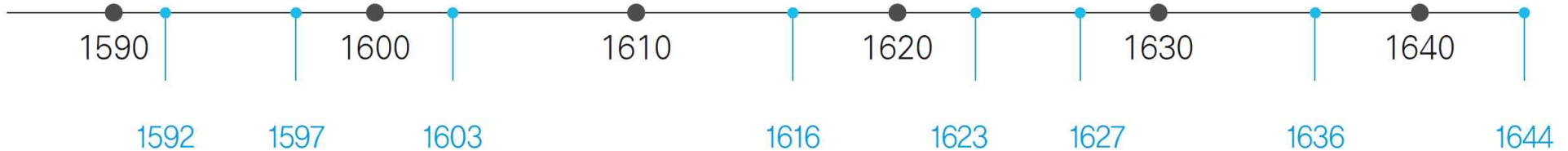


지역(나라)	임진 전쟁	병자 전쟁
중국 본토 · 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 약화 • 여진족의 성장 → ()의 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멸망 • () 중심의 국제 질서 수립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에 대해 ()의 인식 강화 • 일본과 국교 재개 → () 파견 • 인조반정 이후 ()의 외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과 조공 · 책봉 관계 ↳ () 파견 • ()과 조선중화주의 의식 대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막부 성립 • 조선과 국교 재개, 명 · 청과 정식 국교를 맺지 않음 	

Check!

동아시아의 전쟁과 정세의 변화(연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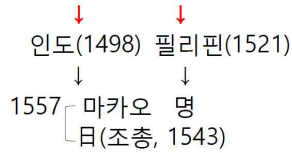
- 임진 전쟁
- 정유 전쟁
- 에도 막부 성립
- 후금 건국
- 인조반정
- 정묘 전쟁
- 명 멸망
- 병자 전쟁



개념 Check

- ① 조선의 사림은 ()를 겪으면서도 향촌 사회에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 ② 일본은 ()을 계기로 100여 년에 걸친 센고쿠 시대의 혼란이 지속되었다.
- ③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을 시행하여 무사만이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일본은 조선에 ‘명을 정복하는 데 길을 안내하라.’라는 뜻의 ()를 요구하였다.
- ⑤ 명이 원병을 파견한 후 조·명 연합군의 () 승리로 임진 전쟁의 전세가 역전되었다.
- ⑥ 명과 일본의 강화 협상 실패 후 일본이 조선을 재침략한 () 전쟁이 발발하였다.
- ⑦ 조선은 임진·정유 전쟁 이후 ()를 체결하여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였다.
- ⑧ 누르하치는 팔기제를 조직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을 건국하였다.
- ⑨ ()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였다.
- ⑩ 인조반정(1623년) 이후 서인은 대외 정책으로 ()을 내세워 후금을 자극하였다.
- ⑪ 병자 전쟁의 결과 청에 굴복하여 ()에서 인조가 항복 의식을 실시하였다.
- ⑫ 조선 효종 때에 청을 정벌하자는 주장인 ()이 제기되었다.

• 16C 서양 신항로 개척[포르투갈·에스파냐], 예수회 선교사 진출



명(1368~1644)

- ① 토목의 변(1449), 경술지변(알탄칸, 1550)
동남 해안 → 왜구 침략(16C)
- ② 쌀·은 유통 → 빈부격차, 세금 부담
- ③ 장거정 개혁 - 일조편법(1573)
(1525~1582)

조선

- ① 훈구(공신, 대토지) ↔ 사림(향촌) : 사화
↳ 붕당(1575)
- ② 평화 지속(국방력 약화, 수취 제도 문란)

일본

- ① 센고쿠 시대(다이묘, 분열, 조총)
- ② 통일(도요토미) - 토지 조사(검지), 석고제(1590)
- 도량형 통일
- 무기 물수령(도수령)
- 무사·상공업자·농민
[신분 이동 금지]
- 병농 분리
* 조카마치(무사, 상인)

영향

- ① 朝 : 국토 황폐화, 명에 대한 사대[재조지은(再造之恩)] 강화
- ② 明 : 쇠퇴 → 재정 악화, 환관 횡포, 농민 봉기
- ③ 日 :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키가하라 전투(1600) → 에도막부(1603)
포로[도공(이삼평, 백파선, 아리타), 성리학(강항)]
통신사 재개(1607), 회답검쇄환사, 기유약조(1609)
- ④ 여진 : 누르하치 부족 통일, 후금(1616, 팔기제), 명 공격

임진 전쟁(1592)

- ↳ 정명향도 요구 → 조선 거부
 - ① 부산 상륙(4월), 초반 일본 승리(조총)
 - ② 선조 의주 피난, 의병 활약
 - ③ 조·명 연합군 → 평양성 탈환(1593. 1월)
 - ④ 명, 벽제관 전투 패 → 휴전 협상 → 日 무리한 요구 → 결렬
 - ⑤ 정유전쟁(1597) : 日 재침략
 - ⑥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1598. 8월) → 철수
 - ⑦ 이순신, 노량해전(1598. 11월)
- 광해군, 중립외교(明 원병 요청 파견)
- 인조와 서인, 친명배금 → 후금 반발

병자 전쟁(1636)

- ① 후금 → 淸(1636), 칭제건원
- ② 淸 → 군신관계 요구
- ③ 남한산성 항전
- ④ 삼전도의 굴욕
(조공책봉)

병자 전쟁 이후

- **중**
- ① 明 멸망(이자성의 난, 1644)
- ② 淸, 베이징 점령(1644)
- ③ 강희제, 삼번의 난 진압(1681)
타이완 정벌(1683)

- **조선**
- ① 북벌론[효종(1649 ~ 1659)]
- ② 조선 중화주의 확산
- ③ 淸 → 연행사 파견
- ④ 日 → 초량 왜관 복구, 통신사

- **에도**
- 明·淸과 국교 맺지 않음
- 조선·류큐와 국교 유지

▶(기),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고다이코 일왕은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키고 일왕의 주도권 아래 일본을 통일하여 이른바 공가일통(公家一統)을 실현하였다.

(나) 각지의 고다이코 일왕 지지 세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자, 고다이코 일왕은 교토를 탈출, 지카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요시노산으로 들어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

- ① 헤이조쿄가 건설되었다.
- ② 정강의 변이 발생하였다.
- ③ 교토에서 새로운 일왕이 옹립되었다.
- ④ 조선이 3포를 통해 일본과 교역하였다.
- ⑤ 고려와 원의 군대가 일본을 침략하였다.

▶지료의 상황이 나타낸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저들이 제멋대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더라도 우리와의 관계가 전과 다름없다면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저들과 맺은 형제의 약조를 지키면서 내치(內治)에 힘을 쓰는 한편, 의주의 방어 체제를 다져 나가는 것이 팔도를 보전하는 좋은 계책일 것입니다.

	(기)	(나)	(다)	(라)	(마)	
세키가하라 전투	후금 건국	인조 반정	정묘 전쟁 발발	삼전도의 항복	이자성의 베이징 점령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가)	(나)	(다)	(라)	(마)	
벽제관 전투	세키가하라 전투	사쓰마 번의 류큐 침공	광해군 폐위	홍타이지의 칭제건원	이자성의 베이징 점령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 16 ~ 17세기 동아시아의 사건 전개

삼포왜란(____년) → 포르투갈 마카오 조차(____년) → 에스파냐의 마닐라 점령(____년) → 나가시노 전투(____년) → 정유 전쟁(____년) → 세키가하라 전투(____년) → 오사카 전투(____년) → 영원성 전투(____년) → 병자 전쟁(____년)